

# 어머니의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을 중심으로 -

## Mother's Internal Working Model for Attachment Relationships ; Adult Attachment Interview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강사 장미자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양연숙

Dept. of Child, Family and Housing Studies, Kyunghee Univ.

Lecturer : Chang, Mi Ja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Lecturer : Yang, Yeon Suk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adaptability of AAI(Adult Attachment Interview) in Korea. The subjects were 20 mothers who had toddlers from middle class. AAI was administrated to them. Interviews were audiotaped and transcribed verbatim.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Mothers' AAI classifications were Secure- Autonomous(F)60%, Insecure-Dismissing(Ds)20%, Insecure-Preoccupied(E) 5%, Insecure-Unresolved/disorganized(U/d) 15%. The classification of AAI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mothers' education, but not mothers' age. Autonomous mothers discribed consistently in evaluation of attachment-related experiences and valued attachment. Dismissing mothers showed a incoherent discourse and dismissed attachment-related experiences and relations. Preoccupied mother sticted to past attachment relationship and perplexed with evaluation of these experiences. Unresolved mothers showed lapse during discussion of loss or abuse and were not free from past experienc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AI(Adult Attachment Interview) can be used for evaluation of mother's internal working model in Korean culture.

## I. 서론

자녀 양육 및 아동발달에서 부모역할은 부모의 양육태도, 행동, 역할수행 등에 항상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지만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성(attribute)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부모들을, 부모역할에 선행하는 생활사(life history)나 부모역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성(identity)이 없는 개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Belsky, 1990). Ricks(1985)는 부모 대부분이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부모특성의 대부분은 자신의 발달적 경험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은 그들 자신의 방위 가족에서의 경험과 관련된다(Main, Kaplan & Cassidy, 1985)고 할 수 있다.

애착에서의 개인차를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서의 개인차로서 재개념화한 Bowlby의 이론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이후의 부모행동간의 연계과정을 설명한다. 즉, 아동은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내적인 정신적 표상이나 실행모델을 형성하며(Bowlby, 1980), 이것은 결국 아동의 인성구조에 통합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예를들어 부모로부터 거절적인 경험을 자주 하는 아동은 자아의 내적 실행모델을 무가치하거나 비수용적인 것으로 형성하며, 부모를 정서적으로 유용하고 지지적인 것으로 경험한 아동은 자아의 내적 실행모델을 유용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내적 실행모델은 일단 구성되면 개인이 사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구성하는 바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은 초기의 모델을 계속 강화하게 된다. 또한 내적 실행모델은 한번 조직화되면 의식적인 인식 외부로 작용하려고 하고 극적인 변화에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내적 실행모델을 다시 재구조화하는 것은 어렵다(Bretherton, 1985). 따라서 영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때 형성된 내

적 실행모델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하며, 부모가 되었을 때 양육행동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자녀와 형성하는 애착관계에도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개인의 아동기 경험과 생식가족 자녀와의 애착의 질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Morris, 1980; Ricks, 1985).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이 방위가족 부모들을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경우 안정애착아를 가지며, 불안애착아의 어머니의 경우 안정애착아의 어머니보다 방위가족 부모에게 덜 수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도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애착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Epstein의 MFP척도로 측정된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낯선상황에서의 영아의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영환(1993), 박응임(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반면, 유아와의 애착관계를 살펴본 조혜수(199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로부터 수용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유아의 안정애착행동이 증가하였고, 거부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불안애착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아동기 경험 중 수용/거부 차원만이 유아기 자녀의 애착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현미(1997)는 Hazan & Shaver(1992)의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어린 시절 어머니에 관한 것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맺었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갖는 애착 안정성(Q-sort로 측정)이 높았다.

이와 같이 부모 자녀간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질문지 방법을 사용하여 부모의 아동기 경험의 심층적인 측면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지 방법은 애착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평가할 때, 방어하기 쉬우며,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기 쉽다(박영숙, 1994). 따라서 무의식적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심층적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에 대한 실행모델은 부모의 객관적 모습이 아니라 애착인물과의, 애착인물을 향한 영아의 행동이나 의도된 행동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의 역사이다. 즉 과거의 사람에 대한 개념은 실제 사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후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사건에 근거해서 재구성된다. 따라서 성인의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은 아동기에 경험했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의 실제보다는 개인이 그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처리했는가와 더 관계되므로 현재 재구성된 '마음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Bretherton, 1985).

George, Kaplan과 Main(1984)은 애착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분류하기 위하여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이라는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개발하였다. AAI는 부모의 양육자와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표상 즉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그러한 경험이 현재의 기능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심층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의 아동기 경험 그 자체의 특성보다는 애착에 대한 현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총체적 분류를 가능하게 해준다. AAI에서의 유형분류는 아동기 경험의 역사를 고려하기는 하나 주요 강조점은 면접에 반응하고, 아동기 경험의 영향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의 현재 '마음의 상태'와 담화(discourse)의 일관성이다 (Deklyn, 1992). Main 등(1985)은 특히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을 '애착과 관련된 정보의 조직과 그 정보에의 접근을 획득하거나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정의하고, AAI를 이용하여 Ainsworth 등(1978)의 '낮선상황'에서의 애착유형과 유사한 성인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을 발견함으로써 영아기 때부터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유형이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AAI를 이용한 많은 연구에서 양육자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양육자 애착유형 간에 일치성이 보고되고 있다. 즉 내적 실행모델이 안정유형인 양육자인 경우 안정애착아를 가지며, 불안유형인 경우 불안애착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일치

정도가 66%-82%로 상당히 높아(Main et al, 1985; Crowell & Feldman, 1989, 1991; Fonagy, Steele & Steele, 1991). 부모의 내적 실행모델의 측정이 부모-자녀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고 타당함이 증명되었다(Bakerman-Kranenburg & Van IJzendoorn, 1996). 또한 이러한 일치성은 일반 아동들뿐만 아니라 임상 아동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Crowell & Feldman, 1989, 1991; Deklyn, 1992),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임상 아동들 어머니의 경우, 성인애착면접(AAI)에서 불안유형이 과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인애착면접에서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와의 애착유형간의 일치성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의 불안유형은 자녀의 안정된 애착형성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평가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어떤 측면이 자녀에게 전이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의 세대간 전이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 부모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평가는 AAI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국내에서는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실정으로, 부모-자녀간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특성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AAI를 이용하여, 면접방법을 통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양육에서의 주양육자는 어머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간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특성의 연구와 부모-자녀 세대간 전이를 규명하는데 기초가 되는,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성인애착면접(AAI)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성인애착면접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아동기 경험의 평가와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그리고 잠재적 위험요인 있는 집단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 20명이며<sup>1)</sup>, 대상인원이 소수인 점과 내적 실행모델 유형의 변별력을 고려하며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류계층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을 위해 아파트 단지 주변의 소아과에 의뢰하여 해당 어머니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소개받아, 연구개요서를 집으로 보낸 후 각 가정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참여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20명의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24세에서 36세로 평균 30세 (SD=3.4)이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7명(35%), 전문대졸이 4명(20%), 대졸 이상이 9명(45%)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13명(65%), 전문대졸이 4명(20%), 고졸은 3명(15%)이었다. 대상 어머니 중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5명이고 나머지 15명은 전업주부였다. 남편의 직업은 관리직과 사무직이 11명(55%), 전문직이 4명(22%), 생산 판매직이 5명(25%)였으며, 가계 월 평균 수입은 약 222만원 (SD=68.2)으로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35%,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45%,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AAI는 전적으로 애착주체에 관한 것으로 매우 구조화된 질문지 형식과 좀더 비형식적인 임상적 면접의 두 가지의 특징을 포함한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 형식에 따라 순서에 맞추어 질문되며, 추후 심층적 질문이 수반된다. 면접자는 대상자들에게 어린 시절 각각의 부모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5개의 형용사(adjectives)를 표현하고 각각의 형용사의 선택을 지지하는 기억들(사건들)에 대해 말하도록 요구하였

다. 또한 그들은 어떤 부모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는지, 왜 그러는지, 어린 시절 거부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위협한 적이 있는지(떠나겠다던가 아니면 내쫓겠다), 어린 시절 부모가 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인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도록 요청하였다. 그외 주요 상실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접된 내용은 전사되었으며 분석은 전사본(transcript)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성인애착면접에서 분류되는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Main, 1996).

#### 가. 안정-자율(Secure-Autonomous, F)유형

애착을 가치롭게 여기고 관계를 중요시하며 경험에 대한 제시와 평가가 내적으로 일관적이다. 응답이 명료하고 적절하며, 면접상황 전체에 걸쳐 직접적이고 쉽게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야기 한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다양하고 객관적인 경험을 서술하며, 과거 경험이나 부모를 이상화하지 않고 애착을 논할 때 편안하다. 아동기 때 거부, 역할 전도<sup>2)</sup> 혹은 학대 같은 불행한 경험을 했더라도 그들은 부모의 냉대를 용서한 경우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 나. 불안-거부(Insecure-Dismissing, Ds)유형

아동기 경험으로부터 떠오르는 감정에 대해 방어적인 것처럼 보이며 애착 경험이 개인발달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부모를 이상화한다.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와 자서전적인 사건이 일치하지 못하거나 모순되고, 아동기 기억이 없거나 과거 경험을 덮어두려

1) 12-18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성인애착면접에서의 내적실행모델 유형이 낮은 상황에서의 영아의 애착유형과 대응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Main, 1997), 전형적인 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역할전도란 부모와 아동의 역할이 뒤바뀌어서(부모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픈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아동에게 부모를 돌보는 것과 부모의 안녕을 유지시키는 것이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고 하여 경험에 대한 진술에서 비밀관적이다. 부모로부터 거절, 냉담, 그리고 독립적이 되도록 재촉받은 사건을 보고 한 경우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 다. 불안-집착(Insecure-Preoccupied, E)유형

면접시 애착이란 주제에 압도당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평가가 혼란되어 있다. 초기 사건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기 경험을 일관성 있고 간결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언어사용에 있어 길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거나 비상식적이고 아이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하며, 애착관련 주제를 넘어서 그리고 그들의 차례가 아닌데도 말하려고 하는 등 경험에 대한 진술에서 비밀관적이다.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부모를 향한 분노 혹은 기쁘게 하려는 시도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 라. 불안-미해결/비조직적(Insecure-Unresolved/disorganized, U/d)유형

면접시 잠재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건을 말할 때 순간적인 착오나 시간의 멈춤(lapse)이 있다. 이 범주에 할당되는 사람은 2-3문장 동안 지속된 멈춤이 있으며, 언어유형의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나기도 한다. 애착대상의 상실이나 상처(trauma)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이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들은 남은 면접동안 일관성 있고 확실한 대답자가 될 수도 있다.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세 범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이 범주의 사람들은 위의 세 유형으로 재분류 된다.

### 3. 연구절차

#### 1) 예비면접

성인애착면접(AAI)의 원안(protocol)은 본 연구자들이 번역하였고, 면접 질문의 적절성과 면접시간, 녹음의 정도, 녹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명을 대상으로 예비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어색한 말투나 질문이 어려운 경우, 뜻이 모호한 경우 수정하였다. 또한 면접반응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자 또한 피면접자가 되어 면접을 받았으며, 이를 통

해 응답이 어려운 경우나 심층적 질문을 해야하는 경우를 명확히 파악하였다.

#### 2) 본 면접

면접은 경희대학교 아동연구실과 연구대상자의 가정에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이 12-18개월 사이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실시되는 경우, 연구보조자가 면접장소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돌보아 아이로 인해 면접이 중단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모든 면접은 연구자들 중 한 명이 실시하였으며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전사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이었고 평균 45분 정도였으며, 처음에는 녹음된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 했으나 면접 중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면접자는 연구대상자가 되도록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일상적인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하였으며, 고정된 순서로 진행되나 연구대상자가 뒤에 질문할 내용을 먼저 말한 경우에도 제재하지 않아 생각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였고, 애착주제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애착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였다.

### 4. 자료의 분석

면접된 자료의 분석은 면접내용을 전사한 전사본만을 가지고 수행되는데 Main과 Goldwyn(1993)의 분류체계에 따라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피면접자의 아동기 경험을 평정하는 3가지의 하위영역<sup>3)</sup>과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평정하는 5가지의 하위영역<sup>4)</sup>에서 5점 척도<sup>5)</sup>로 평정되었다. 둘째, 평정된 내

3) 아동기 경험은 ① 부모의 사랑(Loving vs Unloving Parenting) ② 거부경험(Rejection of the Child's Attachment) ③ 역할전도 혹은 매우 관여하는 부모(Role reversing or Highly Involving Parents) 하위영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4) 애착에 대한 현재 '마음의 상태'는 ① 부모에 대한 이상화(Idealization of the Parent) ② 아동기 회상의 어려움(Insistence upon Inability to Recall Childhood) ③ 부모에

용을 근거로 하여 4가지 유형(자율, 거부, 집착, 미해결/비조직적)으로 분류하였다.

성인에착면접에서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은 아동기 애착안정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의 영향이 회상되고 평가되는,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경험의 본질(nature) 자체보다는 이러한 경험이 전달되는 방식(way of conveying)이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분석은 Main과 Goldwyn(1993)이 언어철학자 Grice의 협조적인 담화(Cooperative Discourse)의 개념을 면접분석에 적용한 것으로, 안정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애착경험을 잘 통합하여 과거 경험을 전달할 때, 매우 일관적인 반면에 불안유형의 사람들은 논리적, 실제적 모순이나, 애착주체에 머무르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비일관적 담화를 보인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면접자의 경험, 사고, 애착대상에 대한 감정 등을 일관성있게, 그리고 융통성있게 묘사하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피면접자의 설명이 읽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들릴 때 일관성이 있다고 고려된다. 유형의 분류는 8가지 척도에서의 점수를 고려하여 전술한 내적 실행모델의 서술과 가장 유사한 유형으로 질적 분류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다.

분석은 연구자들 중 2명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전사본을 함께 읽고 평정척도와 유형분류에 대한 기준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였으며, 처음 10개는 함께 분석하였고 나머지 10개는 따로 분석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각 척도에서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60%-93.3%였고, 유형분류에서는 80%였다. 초기 평정과 후기 평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처음 10개의 사례를 다시 평정한 결과 각 척도에서의 일치도는 87-93%, 유형의 일치도는 100%로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유형분류가 불일치한 경우 토의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면접질문에 대한 일반적 반응

대부분의 어머니들에게 있어 과거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낯설고,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었으며 기억해내기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기까지 하였다. 주요 애착대상자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어머니가 부모라고 언급하였으며, 조부모를 언급한 사람은 2명이었다. 부모를 애착대상자로 언급한 사람 중에서 많은 수(11명, 61%)가 어머니를 더 가깝게 생각하였지만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가까웠다고 생각한 사람도 5명(28%)이었고, 2명(11%)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별로 가깝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애착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절반이 '좋았다' '너무 잘해주셨다'라고 대답하여 애착대상자가 지지적(supportive)이었음을 나타낸 반면에, 나머지 반수는 '자상하지 않았다' '잘해주시려고 한 것 같지만 따뜻한 정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애착대상자가 지지적이 아니었음을 진술하였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형용사로는 '따뜻한' '고마운' '기대가 크신' '무뚝뚝한' '다정다감한' '자상한' '헌신적인' '냉정한' '제한적인' 등이 언급되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묘사한 형용사로는 '두려운' '엄격한' '무서운' '쉽게 가까워질 수 없는' '기대가 많은' 등이었다. 연구대상자들 대부분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의 선택이 어려웠고, 2-3개 이상 말하지 못하였으며, 자신과 아버지가 관계된 사건을 기억해 낼 때, '상호작용이 적어서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대해 표현된 분노(Anger Expressed toward the Parent)

④ 애도나 상처에 대한 해결의 부족(Lack of Resolution of Mourning or Trauma) ⑤진술의 일관성(Coherency of Transcript) 하위영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5) 원래 Main 과 Goldwyn(1993)의 분류체계에서는 9점 척도로 평정하나 9점으로 세분하였을 때 문화적으로 적합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5점 척도 평정 되었다.

‘별로 관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냥 뒷전에서 지켜보는 편이었다’ 라고 하여 연구대상자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도 ‘바다같은’ ‘너그러운’ ‘믿어주시는’ 등의 형용사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가깝게 느낀 사람들이었다. 또한,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과거보다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진술 하였다.

2.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유형 분포

내적 실행모델유형은 초기에는 3범주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낯선 상황’을 통한 영아 애착 유형에서 비조직적/비일관적(Disorganized/disoriented, D) 유형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유형으로 미해결/비조직적(Unresolved/disorganized, U/d)유형이 추가되었다. 3범주 유형으로 분류될 때는 미해결적/비조직적(U/d)유형이 자율(F), 거부(Ds), 집착(E) 유형으로 재분류된다.

본 연구대상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에 대한 3범주, 4범주 분류 분포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유형은 안정유형인 자율유형이 60%로 가장 많았고, 불안유형인 거부, 미해결, 집착유형의 순이었고, 미해결 유형을 재분류한 3범주분류에서는, 자율유형은 변화가 없고, 미해결로 분류되었던 사람 중에 1명은 거부유형으로, 2명은 집착유형으로 분류되어 25%의 사람이 거부유형으로, 15%의 사람은 집착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1>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유형 분포  
단위 : 명(%)

내적실행모델 유형		4범주	3범주
안정유형	자율(F)	12(60)	12(60)
	거부(Ds)	4(20)	5(25)
불안유형	집착(E)	1(5)	3(15)
	미해결(U/d)	3(15)	-
전 체		20(100)	20(100)

이러한 내적 실행모델 유형이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령층에 따라 내적실행모델유형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연령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내적 실행모델이 안정유형인 자율유형이 많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불안유형인 거부나 집착유형으로 분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hi^2=6.23$ ,  $df=2$ ,  $p<.05$ ).

3.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유형의 특징

내적 실행모델의 분류는 면접 전체를 가지고 수행되며, ‘아동기 경험’과 ‘현재 마음의 상태’에 대한 평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내적 실행모델 각 유형의 평정척도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러한 평정의 기본이 되는 면접내용을 중심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아동기 경험

(1) 부모의 사랑(loving vs unloving parenting)

자율유형(F)의 경우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4-5점(5점 척도에서)으로 부모에게서 지지적인 양육을 받은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 부분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 평정되었는데, 어머니의 경우 2점 이하는 없었으며, 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다정하거나 자상하지는 않았지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사례15)고 진술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2점이 5명 있었는데, 하지만 이들의 경우 아주 지지적인(5점) 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부유형(Ds)으로 분류된 4명의 경우 이 척도에서 어머니의 경우, 1점(1명) 2점(2명) 3점(1명)이었고, 1, 2점을 받은 3명은 어머니보다 아버지 점수가 더 높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도 3점을 넘는 사람은 없었다.

집착유형(E)으로 분류된 사람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4점을 얻어 아주 자상하시고 지지적

인 부모였다고 진술하였다.

미해결유형(U/d)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은 어머니가 이혼하여 계모의 밑에서 자란 경우이고, 또 한 사람은 어머니가 어린 시절 가출하여 아버지와 할머니가 키운 경우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머니에게 학대받은 경우이다. 이들 모두 애착대상(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전혀 사랑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아버지의 경우도 낮게 평가되었다.

### (2) 거부경험(Rejection of the child's attachment)

자유유형(F)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부경험에서 1점을 받았으며 소수의 사람이 2-3점을 받았다. 이들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면 다 들어주시려고 하셨다' (사례7) '최선을 다해 해주시려고 하셨다' (사례5)고 진술하였으며, 거의 물질적인 거부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이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이 거부당했던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부모님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었고, 왜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사례11) '너무 바쁘셨다' (사례19)고 답하여 부모의 행동에 대한 이해 또한 반영적(reflective)이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거부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 했으며, 그때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아, 초등학교 때 책가방! 책가방을 사달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사자, 이럴때 너무 속이 상해서 학교를 안가고 그랬어요. 후후후 쓸만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까도 이야기 한 것처럼 어디 가서 쓸만하다 생각하면 중고품을 가져오신 분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너무도 당연한 거죠. 내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되죠. 아버지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보면 이해는 되지요(사례 1)

거부유형(Ds)의 경우 거부점수가 2-5점으로 특히 어머니의 점수가 높았다(4-5점). 이들의 경우 '물질적인 거부는 별로 안하셨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일축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사례9)' '안기고 싶었는데 그럴수가 없었다' (사례17)라고 진술하였으며,

부모가 자신이 상처 받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아서 잘 모르셨을 것이다' (사례10)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내색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사례2)고 하여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행동에 대한 이유설명 또한 일반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제가 "엄마,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가슴을 끌어안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를 귀찮게 했나봐요. 그때 엄마가 막 화를 내신 적 있어요...

그런 거겠지요, 뭐. 항상 아이를 잘 봐주시다가도 애가 엄마를 아프게 했다가 자기 땀에는 그냥 엄마 엄마 했는데 아픈 데 건드렸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겠지요 뭐(사례 2).

집착유형(E)의 경우 부모 모두에게 혼이 난 적은 있으나 거부되었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터무니없는 것 말고는 다 들어주시려고 했다'고 하여 부모가 자신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음을 나타내었다.

미해결유형(U/d)유형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서 거부 점수가 높았다. 부모의 거부 행동의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도 '엄마는 자신만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만 했다(사례13)' '아들이 없는 서러움을 우리에게 표현했다(사례4)' '새어머니가 철이 좀 없었다(사례8)' 등으로 부모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또한 부모가 '아마 거부당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사례4, 13)' '거부당할걸 생각해서 요구하지조차 하지 않았다' (사례8)라고 하여 부모들이 민감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은 이해받지 못하였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사례 4의 경우 3차매 중 자신만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시골 큰집에 있었는데, '떨어져 있는 동안 어머니가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또한 미안해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 (3)역할전도 혹은 매우 관여하는 부모(Role-reversing or highly involving parents)

이 척도에서는 미해결 유형 중 2명만이 약간 높은 점수(3점)를 받았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 연구대상들 대부분이 부모를 거꾸로 돌보아야 하는 경우나 너무 관여하여 어려웠다고



진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 애착에 대한 '현재 마음의 상태'

(1) 부모에 대한 이상화(Idealization of the parent)

자유유형(F)의 경우 부모에 대해 약간의 이상화가 있었으나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묘사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자서전적인 일화가 일치하였고, 긍정적, 부정적 묘사 둘 다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자상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소홀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이, 고비때마다 신경 써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건 중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생리를 시작했거든요, 그 시작한 다음날 엄마가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었어요. 축하한다고요(사례 20).

기대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혼이 많이 났어요. 음...아파트 입구에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절대로 거기 가면 안되었어요. 어떻게 혼난 건 생각안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사먹어도 저는 절대로 안 되었어요(사례 7).

거부유형(Ds)의 사람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부모에 대해 높은 이상화를 나타내었는데 부모에 대한 묘사가 아주 긍정적이었지만 이를 지지하는 사건들을 말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다.

좋으셔요, 좋으셨죠, 지금까지도 좋으시고, ...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표현력 같은게 약하셨어요. 다른 엄마들은 안아주고 뭐하고 뭐하고...그렇게 다른 엄마들은 참 있는데 우리 엄마는 참 그게 없구나 ... (사례 17)

집착유형(E)의 경우에도 부모에 대한 이상화가 약간 높았는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에서 '너무나 잘해주셨다' '헌신적이었다' '자상하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지지하는 일화적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과거 구체적 사건의 예보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만 너무 잘하셔서 화가 난다' '엄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을까' 등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서로 모순되기도 하였다.

미해결유형(U/d)의 경우 대부분 이상화는 거의

없었다.

(2) 아동기 회상의 어려움(Insistence upon inability to recall childhood)

자유유형(F)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기억해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기억이 안나는 경우에도 기억을 회피한다기 보다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여 생각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거부유형(Ds)은 이 척도에서 대부분 3-5점을 받았는데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면접동안 여러 번(10번 이상인 경우도 있음) 하였고, 관계에 대한 서술을 지지할만한 실질적인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애착 에피소드보다는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다. 집착유형(E)의 경우 많은 것을 기억하였으나 기억나는 사건을 잘 배열하지는 못하였다. 미해결유형(U/d)의 경우 상세하게 잘 기억하였으나 애착대상자의 상실이나 학대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잠시 머뭇거리거나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잠시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멈춤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3) 부모에 대해 표현된 분노(Anger expressed toward the parent)

자유유형(F)의 경우 현재 부모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1명의 경우만 아버지에 대해 약간의 분노를 나타내었다. 거부유형(Ds)도 대해 약간의 분노를 나타내었다. 거부유형(Ds)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분노는 없었는데 한 명만이 높은 수준의 화(어머니에게)를 표현하였다. 반면에 집착유형(E)은 부모에 대해(특히 아버지에 대해) 화를 나타내었고, 미해결유형(U/d)은 모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높은 수준의 분노를 표현하였다.

그때 몰랐는데 지금은 더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면은 이해가 안되고 용서가 안되요(사례 13).

(4) 애도나 상처에 대한 해결의 부족(Lack of resolution of mourning or trauma)

자유유형(F)과 집착유형(E)의 경우 사례 전부가

1점이었던 반면에, 거부유형(Ds)은 2-3점으로 미해결의 부분이 약간 있었으며, 미해결유형(U/d)유형의 경우 3-점으로 애착대상자의 상실이나 학대경험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로 지속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잠깐씩 멈추었고, 아직도 어린 시절의 상실과 학대의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자녀가 자신들처럼 고통받을까봐 두려워하였고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그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상실이나 학대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와는 달리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 하였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말대꾸하면 혼나던 기억이 나서 그제 성격으로 굳어져서 지금도 누가 뭐라 하면 하고싶은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못해요... 용서보다도 이해가 안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더해요(사례 14)

#### (4) 진술의 일관성(Coherency of Transcript)

진술의 일관성은 면접 전체에서 검토되며 다음의 4가지 원칙에 적합해야 일관성 있다고 고려된다. 첫째, 진실되어야 하며(진실성, Quality) 둘째, 간결하나 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간결성, 완전성, Quantity), 셋째, 질문에 적절한 답이어야 하며(적절성, relevance) 넷째, 이야기가 명백하고 질서정연해야 한다(명료성, manner).

자율유형(F)의 경우 대부분 전술한 일관성의 4가지 기준에서 모두 4-5점을 받았는데 특히 아동기 경험에 대한 진술에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다양하고 객관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부모와의 관계묘사와 이를 지지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여 첫 번째 기준(진실성)에 적합하였으며, 간결하지만 생략되지 않고 완전하여 읽기가 쉬웠고(간결성, 완전성), 질문에 적합한 내용만을 진술하려 하였다(적절성). 또한 이야기가 질서정연하였고(명료성) 자신의 경험에 대해 신중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거부유형(Ds)의 경우 부모에 대한 관계묘사와 이를 지지하는 사건의 설명에서 모순되거나 지지하는 사건을 열거하지 못하였으며 일반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여 진실되지 않았고(진실성 위배), 면접내용도

짧고 끊기지 못하는 문장이 많았다(간결성, 완전성 위배). 질문에 대해 거부하거나 방어적인 태도(잘 모르겠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를 취하였고, 계속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반복하여 묻는 경우도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관성의 4가지 기준에서 모두 1점을 받았는데, 애착에 관한 주제에서 벗어난 일반적인 이야기가 많았고, 과거보다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였다.

집착유형(E)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관계를 묘사하는 형용사와 이를 지지하는 사건을 잘 연결시켜 첫 번째 기준인 진실성에서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이야기가 너무 길고, 여러 내용이 한 문장에 포함되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는지 알기 어려웠으며(간결성 위배), 질문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고, 자신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부모님들 간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였으며(적절성 위배),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한 문장 안에 있거나 끊임없이 길게 이야기하였고, 이미 한 말을 반복하였고, 질문하지 않은 내용도 이야기하는 등 이야기가 무질서하고(명료성 위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하였다.

미해결유형(U/d)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3-4점으로 거부(Ds)나 집착(E)유형보다 낮지 않았으나 애착대상자의 상실과 학대의 경험을 이야기 할 때,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라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면에 너무 자세하게 학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비교적 일관적이었다.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평정점수는 안정유형인 자율유형인 경우 평균이 4.2(SD=0.5)이었고 불안유형인 거부, 집착, 미해결 유형의 경우 평균이 2.6(SD=0.9)으로 안정유형의 경우가 훨씬 높았다( $t=5.19, p<.001$ ).

한편, 애착관계가 인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자율유형(F)의 경우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둘 다 언급하면서 애착을 매우 가치롭게

여졌다. 즉 '자기 있는 성격 그대로 클 수 있게 해주셨다' (사례7), '엄마가 신경써주셨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사례19) '적당한 관심으로 독립적으로 키워주셨다' (사례20)라고 언급하였으며, 그들 모두 부모의 영향이 자신의 인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거부유형(Ds)의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더 강조하였는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오히려 빨리 철이 들게 하거나 독립적이 되었다' (사례9) '부정적인 영향은 없고, 좀더 개방적이 되었다' (사례2) 등이 언급되었고,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라기 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10) 등 부모가 못해준 것을 한다기 보다 자신의 생각임을 더 언급하였다. 집착유형(E)의 경우 엄마의 헌신적인 모습이 가끔 도움이 되는 면이 있으나, 그 헌신적인 모습이 바보같이 생각될 때도 있고 또한 너무 감성적으로 키워져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등 애착 경험의 영향에 대해 약간 혼란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해결유형(U/d)의 경우, 세 명 모두 어린 시절의 애착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에게 또 그런 경험을 갖게 할까봐 두려워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영향을 주는 부모특성의 측면을 규명하기 위해, 성인애착면접(AAI)를 통해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평가하고 내적 실행모델 각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은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에게 힘든 작업이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효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내향적인 인성특성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또한 '엄부자모'라는 전통적 사고 때문인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관계에 대한 진술 또한 피상적인 경우가 많

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이 어머니이므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딸의 경우 아들보다 아버지와 상호작용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평가를 위한 성인애착면접의 경우 연구대상이 아버지일 경우 다른 반응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대되고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아버지의 내적 실행모델의 평가를 위한 성인애착면접의 적용가능성 또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유형은 안정-자율(F)유형이 60%, 불안-거부(Ds)유형이 20%, 불안-집착(E)유형이 5% 불안-미해결(U/d)유형이 15%로 나타났으며, 불안-미해결유형(U/d)을 재분류한 3범주 분류에서는 자율유형(F)이 60%, 거부유형(Ds)이 25%, 집착유형(E)이 15%를 나타내어, 60%의 어머니가 안정유형으로, 그리고 40%의 어머니가 불안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AI를 이용하여 연구한 33개의 연구를 가지고 내적 실행모델 유형을 메타 분석한 Bakerman-Kranenburg와 Van IJzendoorn(1996)의 연구결과<sup>6)</sup>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대상의 경우 불안-집착유형(E)이 한 명으로 외국의 연구에 비해 적게 나타났는데, 연구대상의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형 분류에서 평정자간 일치하지 못한 부분은 안정유형의 분류에서는 없었으며 미해결유형(U/d)으로 우선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안유형(Ds, E)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었다. 미해결유형(U/d) 분류에서의 불일치는 외국연구(Ward & Calson, 1995; Deklyn, 1992)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sup>7)</sup>으로, 아동기 애착대상의 상실에 대한 애도(mourning)와 학대로

6) 비임상적 집단에서, 4범주 분류에서는 F유형이 55%, Ds유형이 16%, E유형이 9%, U/d유형이 19%였고, 3범주 분류에서는 F유형이 58%, Ds유형이 24% E유형이 18%로 나타났다.

7) 평정자간 일치도는 3범주 유형분류보다 4범주 유형분류에서 낮게 나타나는데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U/d 유형분류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인한 상처의 해결여부에 대한 평정이 어려워 평정자간 불일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내의 경우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의 미해결유형(U/d)과 대응되는 '낯선 상황'에서의 영아애착 비일관적/비조직적(D)유형의 회소성(박응임, 1995; 나유미, 1997)에 비추어볼 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며, 성인의 관계에 대한 유형분류에서 상실에 대한 애도와 확대경험에 대한 상처의 해결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평정기준을 보완하여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의 특징은 위에 언급된 연구들에서 나타난 특징과 유사하였는데, 자유유형(F)의 경우 대부분의 어머니가 애착대상자로부터 지지적인 양육을 받았고, 거부 경험은 거의 없고, 애착을 가치롭게 여겼으며,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아동기 경험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경험에 대한 묘사가 진실되고 명료하며 적절하여 매우 일관적이었다. 그러나 자율유형(F)으로 분류된 어머니들 중, 2명의 경우 어린 시절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지지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어린 시절 형성된 내적 실행모델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적실행모델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sup>8)</sup>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주요 애착대상자의 상실을 경험하였으나 조부모의 지지적인 양육경험을 통해 자유유형(F)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부모가 아닐지라도 애착대상자에 의해 충분히 사랑받았다면 안정적인 내적 실행모델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대리양육자(조부모, 탁아교사)에 의해서 부정적 경험이 보상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거부유형(Ds)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어머니에게서 지지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거부 경험이 많았고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 따뜻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람들의 경우도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 유형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부모에 대한 이상화가 높고,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것이다. 애착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많지 않고, 부모

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잘 모르겠다' '생각나지 않는다' 등으로 응답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것은 애착을 가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면접질문에 대한 방어가 높다는 Grossmann Fremmer-Bombik, Rudolph과 Grossmann (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험의 제시가 진실하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하여 Main & Goldwyn (1993)이 언급한 거부유형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다.

집착유형(E)의 경우, 현재 부모에 대한 분노가 높고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에 대한 평가에 있어 혼란스러웠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지 않았고 경험의 제시 또한 진실성은 있었으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하나의 응답에 혼합되어 있고, 문장이 길고 앞뒤가 맞지 않아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부모로부터 아주 지지적인 양육을 받았고 역할 전도나 부모로부터의 지나친 관여가 없었으나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명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유형으로 생각되기 어려우나 Main과 Goldwyn(1993)의 유형분류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애착대상자의 상실이나 확대의 경험을 언급한 사람 중 3명은 U/d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유형을 세 유형으로 재분류하였을 때 1명은 Ds유형으로 2명은 E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Ds유형으로 분류된 사람의 경우 애착자체를 가치롭게 여기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하여 자신의 성공에 매우 집착하였다. 반면에 E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경우 애착자체는 가치롭게 생각하였으나 자신의 애착경험을 통합하지 못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전전긍긍 하였고, 불안해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애착대상자의 상실과 확대경험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의 해결에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경험의 영향 정도와 전이

8) 둘 다 교육수준이 대졸이었고, 한 명의 경우 종교적인 영향을 언급했으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치 않음.

과정의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 자녀간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특성의 연구와 부모-자녀 세대간 전이를 규명하는데 기초가 되는,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의 연구들과 유사한 유형분포와 특징을 나타내어 AAI를 통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적용가능함이 증명되었고,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육의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와 세대간 전이 연구에 AAI를 이용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적고 중류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앞의 논의에서 지적하였듯이 자녀의 애착에 미치는 부모특성과 세대간 전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교육수준과 계층별로 관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되어야 하며,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한 사람의 내적실행모델의 변화의 양상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것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좀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도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면접 방법은 질문지 방법과는 달리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 방어하기 어렵고, 무의식적인 요소를 드러내기 쉬워 사람들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AI를 이용한 연구는 면접과 전사에 소용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며, 또한 면접과 평정에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고 평정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면접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양적 질적 분석방법을 병행하는)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평가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 특성과 세대간 전이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

한 개념으로 성인애착면접(AAI)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을 평가하고 국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한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탐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1) 나유미(1997). 한국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박영숙(1994). 심리평가의 실제. 서울: 하나 의학사
- 4) 이영환(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현미(1997).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조혜수(1995). 어머니의 애착과 아동의 애착행동.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8)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1996).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fathers, adolescents, and clinical groups: A meta-analytic search for normative dat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8-21.
- 9) Belsky, J. (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85-903
- 10)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 11)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3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12)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 olds. In M.T. Greenberg, D. Cicchetti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121-16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3)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14) Deklyen, O. M. (1992). Childhood psychopathology a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 comparison of normal and clinic-referred disruptive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15) Fonagy, P., Steele, H., & Steele, M.(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16) George, C., Kaplan, N., & Main, M.(1984, 1996).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17) Grossmann, K., Fremmer-Bombik, E., Rudolph, J., & Grossmann, K. E.(198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as related to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maternal care during the first year. In R. A.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 between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pp. 241-260).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18) Main, M., & Goldwyn, R. (1993).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19)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66-10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20) Morris, D. (1980). Infant attachment and problem solving in the toddler: Relations to mother's family his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21) Ricks, M. H. (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211-227).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22) Sroufe, L.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Hillsdale, NJ: Erlbaum.
- 23) 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